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VID-19 Documentation Strategy for University Archives

김가은(Gaeun Kim)¹, 이종욱(Jongwook Lee)²

E-mail: 2304rkdms@naver.com, jongwook@knu.ac.kr



¹ 제 1저자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전공 석사
²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논문접수 2022-01-25
최초심사 2022-01-28
게재확정 2022-02-09

ORCID

Gaeun Kim
https://orcid.org/0000-0002-0151-7912
Jongwook Lee
https://orcid.org/0000-0002-5332-3765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본 논문은 김가은의 석사학위논문 「대학 기록관의 감염병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발: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2022)를 요약·수정된 것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학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대학’을 주제로 Heckman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여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과 ‘전략 설계’를 수행하였다. 먼저, 예비분석 단계에서는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하였으며,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안을 확정하였다. 전략안에는 도큐멘테이션 목적과 영역, 그룹을 비롯한 참고정보, 주요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기록관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개발한 것으로 추후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기록 확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VID-19 documentation strategy for university archives, which will act as a response system to infectious diseases. The study applied the phases of “documentation area definition and preliminary analysis” and “documentation strategy drafting” described in Heckman’s documentation strategy model. In defining the documentation area and doing preliminary analysis, the author analyzed the cases of COVID-19 documentation projects at overseas university archive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 drafting the documentation strategy, the author interviewed three archivists working in university archives. From these findings, the documentation strategy plan was developed and revised based on the feedback from archivists. The strategy plan covers the documentation purpose, subject/functional area, group, reference information, and major consider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ight be useful for figuring out ways to secure records related to COVID-19 or other infectious diseases in university archives.

Keywords: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 대학기록관, 감염병 재난, 기록 수집
COVID-19, documentation strategy, university archive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record collection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란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해 주요 전파된다(질병관리청, 2021).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였고(김용철, 2020),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뉴스1, 2020).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후, 2021년 11월 26일 기준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 그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특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주는 감염병은 재난으로 분류되며(신현기 외, 2012), 코로나19는 감염병 재난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이순민, 2020), 여러 기관과 조직에서는 감염병 재난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이 이루어지고 적합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난기록 관리이다(한희정 외, 2017a). 재난기록이란 좁은 의미로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며 넓은 의미로는 재난 당시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다(한희정 외, 2017b). 재난기록에 대한 관리는 재난 발생 당시의 대응 업무에 투명성을 높여준과 동시에 대응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감염병 재난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과 조직에서는 감염병 재난기록을 체계적인 관리하여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2020년 12월 29일에 재난·위기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고자 주요 부처들에 코로나19 대응 기록물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김지훈, 2020).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록이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재난기록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과 조직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마비를 초래한 감염병 재난을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감염병 재난기록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여 코로나19 기록의 확보 목적과 범위,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조직 중에서도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대학은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대학 내 주요 정책의 기록화 및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공개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국가기록원, 2020) 설명책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학 기록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봉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대응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대학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대학은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대학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Hackman & Warnow-Blewett, 1987)을 적용하여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감염병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헤크만의 모델은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 전략 설계, 그룹의 실행, 기타 그룹의 실행, 보고, 영역 재심의 등의 총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 단계와 전략 설계 단계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도큐멘테이션 전략

2.1.1 개념 및 특징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 주제, 과정, 또는 사건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확보하고 선별하기 위한 방법’(SAA, n.d.)을 말한다. 즉, 특정 대상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파악하여 그것을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한 기록의 수집과 생산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특정 대상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을 위해 어떤 기록과 정보가 필수적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 필수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기록의 생산과정에도 관여하며, 셋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의 실행과정에 아키비스트와 기록 생산자, 이용자 등 그 대상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대상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라는 도큐멘테이션의 특징이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록관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Johnson, 2008). 대표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로는 사무엘스(Samuels, 1986)와 헤크만(Hackman & Warnow-Blewett, 1987), 그리고 콕스(Cox, 1996)가 제시한 모델이 있다. 사무엘스의 모델은 복수의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큐멘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Samuels, 1986), 콕스의 모델은 도큐멘테이션 영역이 지역인 경우에 특화된 모델이다(Cox, 1996). 본 연구는 주제, 사건 영역의 도큐멘테이션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헤크만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2.1.2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

헤크만의 전략 모델은 1)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와 예비 분석, 2)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3)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전략 실행, 4) 기타 그룹의 전략 실행, 5) 도큐멘테이션 보고, 6) 도큐멘테이션 영역 재심 등의 6단계로 구성된다.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

먼저,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 분석단계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초안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가능한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큐멘테이션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예비 도큐멘테이션 그룹을 구성하며,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예비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구성을 확정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한다. 이는 모든 도큐멘테이션 관계자들에게 도큐멘테이션 현황과 필요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 중 구성원들의 결정을 돕는 기능을 한다.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전략 실행 단계에서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도큐멘테이션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기타 그룹의 전략 실행 단계에서는 도큐멘테이션 그룹 이외에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활용, 보존 과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전략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관행을 개선하며, 전략을 홍보한다. 다음으로 도큐멘테이션 보고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그룹과 그 외의 관련자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도큐멘테이션 영역 재심의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영역과 관련된 주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큐멘테이션 영역에 대한 정보를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Hackman & Warrnow-Blewett, 1987).

2.2 선행연구

대학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희동(2013)의 연구가 있다. 한희동(2013)은 기관 중심, 주제 중심, 지역 중심의 세 가지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일반화하여 4가지 단계의 도큐멘테이션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설립자 기록물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 실행하였으며 설립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 사례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행정기록 위주 수집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집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난기록에 대한 연구는 이미영(2009)과 정혜지, 이승휘(2018) 등이 수행한 바 있다. 먼저, 이미영(2009)은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기록관리 사례를 통해 민간 영역의 도큐멘테이션을 위해 어떤 방식의 기록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과 당시, 그 이후의 기록 관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기록화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적극적인 분담 노력과 협력, 적극적인 기록의 생산과 수집, 그리고 광범위한 기록의 수집 범위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정혜지와 이승휘(2018)는 미국 9.11 테러의 아카이브이자 추모 공간으로 설립된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정과 기록 수집 방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카이브 설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그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적용한 사례로 김유승, 류반디(2015)와 오정희, 정연경(2015)의 연구가 있다. 김유승, 류반디(2015)는 노근리 사건을 주제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1단계인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와 예비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영역 정의와 예비분석을 위해 사건의 전개과정을 조사하고,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초점그룹을 정의하였으며, 사건의 전개과정별 기록의 주요 생산자와 기록물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또한 오정희, 정연경(2015)은 대통령 기록을 대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도큐멘테이션 영역 설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였으며, 소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능분석과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 과정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대학’을 주제로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에 따라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 분석 단계’와 ‘전략 설계 단계’를 적용하였다.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 단계를 수행하기 전 대학의 기능에 따른 대학 및 대학 구성원의 모든 활동을 기본적인 도큐멘테이션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예비분석 단계에서 해외 대학 도서관 및 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1차적으로 도큐멘테이션 시기와 기록물의 형태 및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해당 주제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식별한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보완 및 확정하였다. 끝으로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략안을 작성하였다. 예비분석 단계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의 연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예비분석

3.1.1 사례조사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대학 26곳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구글(Google) 검색사이트에서 “university, archiving covid-19”와 “university, documenting covid-19” 두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여 키워드와의 연관성이 높은 처음 두 페이지까지의 검색 결과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해외 대학의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사례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대학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문과 각종 자료(예, 설문지)에 제시된 프로젝트의 목적과 참여 대상, 기록의 수집 시기와 방식, 수집 기록물의 내용적, 형태적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록물의 내용과 형태는 각 사례에서 제시한 예시를 모두 수집하여 공통된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도큐멘테이션의 시기와 기록물의 형태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표 1> 사례조사 대상 대학 목록

순번	대학명	순번	대학명
1	Columbia University	14	Syracuse University
2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5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3	Michigan State University	16	Colorado State University
4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7	Stanford University
5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18	University of Pittsburgh
6	Villanova University	19	Carleton University
7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	University of Waterloo
8	University of Toronto	21	University of Saskatchewan
9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22	Duke University
10	Drexel University	23	La Salle University
11	Clemson University	24	Wake Forest University
12	Louisiana State University	25	Brown University
1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26	Harvard University

3.1.2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조사는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내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면담은 ‘A 대학’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B 대학’ 소속 예방의학자 각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면담은 2021년 9~10월에 이루어졌으며, 약 30~40분간 진행되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참여자는 전화, 교수와 교직원 참여자는 대면, 예방의학자와 기록관리전문요원 참여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참여자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생활의 변화와 대학의 대응, 대학의 대응 중 아쉬운 점 및 보완사항,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한 정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내용적으로 공통된 항목끼리 분류하는 작업(코딩)

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사례조사 단계를 통해 식별한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기록물의 내용 분류 항목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였다.

〈표 2〉 면담참여자 정보: 예비분석 단계

면담참여자	직책	업무 경력(또는 재학기간)	주요 업무
학부생 A	학부생	4년	학습 및 학생활동
대학원생 B	대학원생	2년	학습 및 학생활동
교수 C	교수	19년	강의 및 연구
교직원 D	조교	14년	학과 업무
예방의학자 E	교수	17년	학생교육, 연구, 지역보건 정책 개발
기록관리 전문요원 F	계약직원	12년	대학기록관 주요 업무 보좌

3.2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A’, ‘C’, ‘D’ 대학 소속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면담은 예비분석 단계의 면담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G는 전화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기록관리 전문요원 F와 H는 메일을 통해 답변을 받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 F의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두 번 메일을 주고받았다. 면담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 <표 3>과 같다. 면담 항목은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제약사항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대학의 코로나19 기록 관리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예비분석 단계의 면담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표 3〉 면담참여자 정보: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

면담참여자	직책	업무 경력(또는 재학기간)	주요 업무
기록관리 전문요원 F	계약직원	12년	대학기록관 주요 업무 보좌
기록관리 전문요원 G	팁장	9년	기록물관리 총괄
기록관리 전문요원 H	기록연구사	7년	기록 관련 업무 전반

위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및 기록관리 전문요원 면담에 근거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공립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 3명에게 전략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수정하여 최종 전략안으로 확정하였다.

4.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

4.1 사례조사

코로나19 관련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26개 대학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기록 수집 방식과 시기, 수집 기록물의 형태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 대학의 프로젝트 사례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동영상, 녹음, 웹사이트, 박물관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표 4> 참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학습 및 대학 생활의 변화, 연구 및 수업의 변화, 업무의 변화, 대학의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5> 참조). 대다수 대학에서 도큐멘테이션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식별한 기록의 형태 및 내용 구분과 도큐멘테이션 시기를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표 4>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형태 분류

구분	내용
텍스트 자료	일기, 서신, 저널, 시, 기타 글, 신문 스크랩, 이메일,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이미지 자료	사진, 예술 작품, 온라인을 통한 활동 캡처, 소셜 미디어 게시물 스크린샷
동영상	뉴스보도, 증언자 녹화 등 AV 영상, 비디오, 온라인을 통한 활동 영상
녹음	음성메모, 오디오 녹음, 음악
웹사이트	코로나19 관련 대학 웹사이트
박물관	기념품

<표 5>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내용 분류

구분		내용
학생	학습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시기 학업 방식의 변화 • 코로나19 시기 학기를 마친 소감 • 원격 강의에 대한 의견
	대학 생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시설의 이용 제한으로 인한 영향 •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영향 •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경험 • 소외집단(예, 저소득층 학생), 유학생 등의 경험
교수 및 교직원	연구 및 수업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폐쇄 전 수업에서 코로나19가 논의되었던 방식 • 원격 강의에 대한 교수의 안내 • 학생 및 동료의 요청 사항 • 코로나19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업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경험 및 변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 및 부서 신설 • 코로나19 관련 연구 프로젝트
공통	대학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 수업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의사결정

4.2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생활의 변화와 대학의 대응 및 그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활용했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기록관리 전문요원, 예방의학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4.2.1 대학 생활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대학 생활의 변화는 크게 ‘교육’과 ‘행정업무’, ‘시설 이용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교육은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변화로 언급을 하였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뽑았으며, 교수 참여자는 수업과 더불어 학생지도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교직원 참여자는 실험, 실습이 제한된 것을 응답하였다.

〈표 6〉 '대학 생활의 변화' 관련 코딩 결과

대분류	중분류
교육	온라인 수업
	실험/실습
	학생지도
행정업무	방역
	안전지도
	수업지원
시설 이용제한	

행정업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가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참여자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대학 내 코로나19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전지도는 업무의 변화로 언급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설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이용 가능한 시설과 시설의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예를 들어 대학원생 참여자는 학교 출입이 제한되고, 도서관 이용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체육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었다고 답하였다.

4.2.2 대학의 대응

대학의 대응은 '지침 수립 및 제공'과 '방역 업무', '교육 및 학생지원', '대응 평가'로 구분하였다(〈표 7〉 참조). 면담 결과, 대응 지침 수립 시 대학에서 활용하는 정보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언급되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참여자는 질병관리 본부나 상위 공공 관할 기관에서 내려오는 방역 수칙을 예시로 들었으며, 교직원 참여자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대응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지침 제공'은 각 대학 구성원들에게 수립된 대응 지침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수업과 관련하여 각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학의 지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예로, 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여자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수업 방침을 언급하였다.

〈표 7〉 '대학의 대응' 관련 코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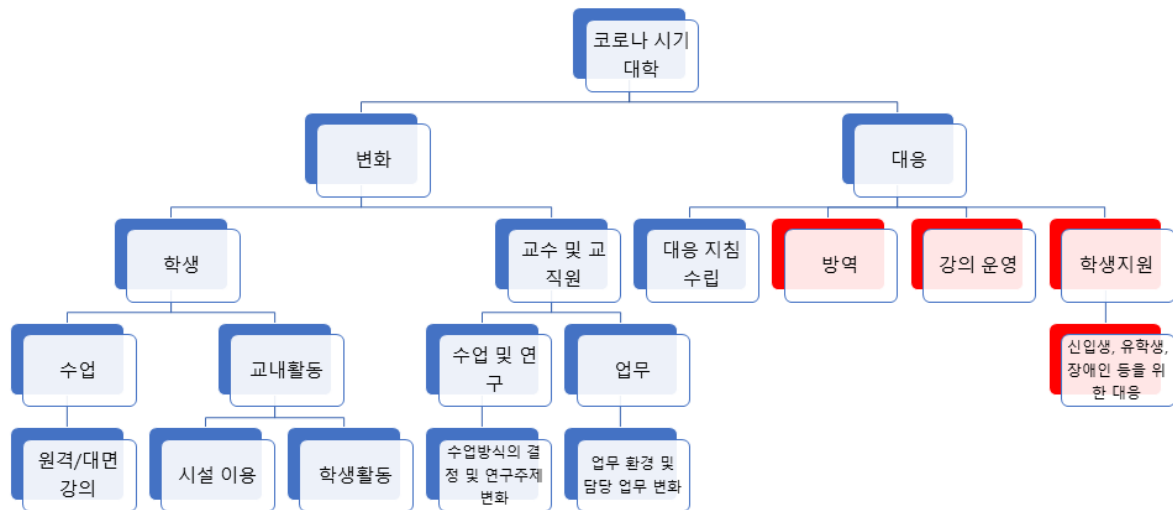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지침 수립 및 제공	지침 수립 활용 정보
	지침 제공
방역 업무	
교육 및 학생지원	
대응 평가	신속하지 못한 대응 및 의사결정
	추가 조치가 필요한 구성원

방역 업무에 대해 교직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업무 변화이자 대학의 대응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로

설명하였다. 예방의학자 참여자는 대학의 대응 업무 항목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방역 지침 마련과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및 학생지원에서는 강의 운영과 수업 결손 보안 방안 고려 등이 대학의 대응 업무로 언급되었다. 교직원 참여자는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을 결손에 대한 보안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예방의학자 참여자는 대학의 대응 업무로 학생 강의 운영과 학생지원을 언급하였다.

대학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교직원 및 교수 참여자는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예방의학자 참여자 또한 구성원 개개인의 보고에 의존하여 감염 여부나 동선 파악 등이 이루어지므로 대학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입생과 졸업생, 장애인이 언급되었다. 대학원생 참여자는 신입생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할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하였다. 또한 학부생 참여자는 졸업생에 대해 졸업과 취업을 위한 활동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체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과 마스크 착용으로 소통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면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조사 단계에서 도출한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내용 분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기록의 내용적인 측면을 종합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도큐멘테이션 영역: 기록의 내용 측면

5.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5.1 기록관리 전문요원 면담조사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관리 현황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의 장애요인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대학 기록’과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5.1.1 대학 기록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생산 기록 현황’과 ‘기록관의 재난 관련 소장 기록’, ‘코로나19 관련 기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8> 참조). ‘코로나19 관련 생산 기록 현황’에서 대학의 행정기록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록관의 소장 기록’ 중 ‘과거 재난 관련 소장 기록’에 대해서는 소장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다수 기록관은 코로나19 이전의 재난기록을 수집한 이력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별도의 기록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 기록을 소장 및 관리하는 대학기록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록이 현행 기록이기 때문에 이관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점, 수집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 기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으로는 정부의 대응 자료와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에 대한 의무 기록 또는 개인 기록이 언급되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질병관리 본부 및 관할 지자체 등의 대응 자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 대응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및 접종 관련 의무 기록, 기타 개인 기록 등은 재난 및 질병 대처를 위한 주요 기록물들로서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는 기록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8> ‘대학기록’ 관련 코딩 결과

대분류	중분류
코로나19 관련 생산 기록 현황	
기록관의 재난 관련 소장 기록	과거 재난 관련 소장 기록
	코로나19 관련 소장 기록
코로나19 관련 기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	

5.1.2 도큐멘테이션 전략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관련된 면담 내용은 크게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9> 참조). 요구사항 중 ‘대학구성원의 참여 유도’에는 수집 기록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주제 선정, 참여자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이 언급되었다. ‘수집 가이드라인 구축’에 대해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수집 활동을 위해 수집 대상에 대한 정의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제약사항 중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 수집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이벤트와 같은 홍보를 통해 기록의 수집 활동에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예산을 할당받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 별도의 수집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교육기회 부재’에 대해서는 교직원 외의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록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없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수집정책의 부재’에 대해서는 아직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 기록의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 정책이 없기 때문에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정보 포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 중에는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록생산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관 또는 수집 이후에도 해당 기록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9〉 '도큐멘테이션 전략' 관련 코딩 결과

대분류	중분류
요구사항	대학구성원의 참여 유도
	수집 가이드라인 구축
계약사항	예산 부족
	업무 부담
	교육기회 부재
	수집정책 부재
	민감한 정보 포함

5.2 전략안 작성

예비분석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구성하였다. 전략안은 헤크만이 제시한 형식에 따라 '도큐멘테이션 목적', '도큐멘테이션 영역', '도큐멘테이션 그룹', '참고정보', '주요 고려사항', '전략 적용 기간 후 도큐멘테이션 전략 향후 조치'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1 도큐멘테이션 목적

도큐멘테이션의 목적은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학의 대응을 대비하고 평가,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을 대학기록관에서 확보 및 관리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신종 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학을 포함한 각 기관은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구성원들의 기록은 현재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돕고, 미래의 대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재난의 대비를 위해 체계적인 확보와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면담조사 결과 대학 기록의 이관 및 수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파악하여 해당 기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5.2.2 도큐멘테이션 영역

도큐멘테이션 영역은 도큐멘테이션 시기와 기록물의 형태 및 내용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시기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로 설정하였다. 기록의 형태는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동영상, 녹음, 웹사이트, 박물로 구분하였다. 내용은 예비분석 단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그림 1〉 참조) 코로나19 시기 대학의 '변화'를 '원격 및 대면 강의', '시설 이용', '학생활동', '수업방식 결정 및 연구 주제의 변화', '업무 환경 및 담당 업무의 변화'로 구분하고, '대응'을 '대응 지침 수립', '방역', '강의운영', '학생지원'으로 구분하였다. '학생지원' 항목의 경우 대응의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신입생, 유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대응'을 추가하였다.

5.2.3 도큐멘테이션 그룹

면담조사 결과, 기록관은 업무 과중 및 예산 부족으로 별도의 수집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자발적인 참여와 도큐멘테이션의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 분야에 높은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구성원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각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1명, 기록학 또는 관련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 3명, 학생회 임원 1명을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구성원으로 선정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교직원들의 협력을 촉구할 수 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구술 기록을 포함하여 도큐멘테이션 대상의 기록을 수집하고, 대학구성원들의 협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회 임원은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5.2.4 참고정보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하기 위해 활용한 정보는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사례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한 대학구성원 및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주제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 기록물의 내용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면담조사에서는 기록의 보존가치와 대학기록관의 현황, 전략 수행 시 필요행동 및 제약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5.2.5 주요 고려사항

주요 고려사항은 크게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유형, 기록관의 기록 수집 및 관리현황,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에 대한 제약사항, 그리고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행동이 있다.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유형에는 정부 및 대학 본부의 대응 지침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개인 기록이 있다. 정부와 학교의 대응 지침은 대학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이며, 차후 감염병 재난의 대응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확진 및 접종과 관련된 개인 기록은 해당 재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록관의 기록 소장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대학기록관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 관련 기록을 소장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행정기록은 대부분 전자기록의 형태로 생산되지만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 활동 또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제약사항은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교육 기회 부재’, ‘예산 부족’, ‘민감한 정보 포함’ 등이 있다. 첫째, 총무과와 같은 다른 부서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문요원 혼자서 기록관리 업무 전반과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에서 수집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교직원 이외의 대학구성원에게 기록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부재하여 대학구성원들의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어렵다. 셋째, ‘예산 부족’은 도큐멘테이션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특히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할 때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기록 중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기록 생산자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 행동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구체적인 수집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기록 수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각 수집 기록의 주요 생산자와 형태, 수집 절차를 파악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둘째, ‘대학 내/외 구성원 또는 그룹과의 협력 관계 구축’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 내외로 도큐멘테이션 활동에 관심이 높은 구성원 및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홍보 활동’은 도큐멘테이션 전략문과 전략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보고를 대학구성원 전체에게 배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도큐멘테이션 웹사이트 개설’은 도큐멘테이션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기록을 기증할 수 있으며, 생산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문지를 제공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 수집 활동’은 전략 수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앞서 설정하였던 도큐멘테이션 대상 중 기록의 수집이 부족한 항목에 대해 별도의 기록 수집 활동을 계획,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5.2.6 향후 조치

향후 조치로는 수집 기록물의 선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선이 있다. 첫째, 대학기록관의 상황과 기록의 유형에 따라 기록관에서 보존할 기록물을 선별하고,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미래의 이용자들이 쉽게 기록을 탐색하고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 유형별 소장 현황을 파악하여 어떤 유형의 기록이 부족한지 파악하여 전략 개선 과정에 반영한다. 둘째,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전략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처음 수립한 전략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차후 전략 수행을 위해 수정 및 보완한다.

5.3 검토 및 보완

기록관리 전문요원 3명을 대상으로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보완사항은 총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시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태이기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의 경우,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상황을 충분히 기록하고자 위드 코로나의 전환 이후 1년까지를 도큐멘테이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기록물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항목의 명칭을 기존의 대학기록관이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어가 통일되었을 때, 전략 기간 중 기록의 확보 과정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간 이후 기록의 분류 및 목록 작업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의 대학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학 기록은 형태적으로 문서류, 도서류, 도면류, 카드류, 간행물류, 사진류, 시청각류, 박물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항목이 도큐멘테이션 전략 초안에서 정의한 기록물의 6가지 형태와 일치하나 웹사이트 기록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기록물의 형태는 ‘문서류’, ‘카드류’, ‘간행물류’, ‘사진류’, ‘시청각류’, ‘박물관류’, ‘웹기록류’로 정의하였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그룹을 다양한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 그룹 중 ‘기록학 또는 관련 전공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 도큐멘테이션 활동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때, 참여 촉진 대상이 전체 대학 구성원 중 기록학 및 관련 학부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룹의 구성을 ‘기록관리 전문요원’ 1명과 ‘기록학 전공자’ 1명, ‘도큐멘테이션 활동에 대한 높은 흥미를 가진 대학 구성원’ 2명, ‘학생회 임원’ 1명으로 수정하여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룹의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기록화 지원 가이드’를 참고정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안 작성 시, 해당 가이드에 제시된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 기간을 근거로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기술한다면 전략안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 시 사용하는 분류기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분류기준표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간 이후 기록의 정리와 활용 업무를 계획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고려사항 중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유형에서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개인 기록’을 개인 기록이 아닌 이에 대한 대학의 대응 기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기록생산자와의 협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물의 기증 시 대학구성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동의를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 행동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행동 중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대체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래의 감염병 재난 대비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전산 부서와의 협력 및 예산 책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대학을 도큐멘테이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 개설’을 선택 항목으로 구성하고, 도큐멘테이션 활동과 기록 수집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 적용 기간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 향후 조치’에서 분류 체계의 수립 또는 수정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도큐멘테이션 기간 동안 확보된 기록을 파악하여 기존의 기록 분류 체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수립한 이후, 기록의 선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정한 결과, 최종 전략안을 제안한 것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안

<p>1.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생활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학의 대응을 기록화 하여 전염병에 대한 대응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하며, 추후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p>2. 도큐멘테이션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후 1년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기록을 수집 대상으로 함• 수집 기록물의 형태는 문서류, 도서류, 도면류, 카드류, 간행물류, 사진류, 시청각류, 박물관, 웹기록류로 분류하며, 내용은 ① 원격 및 대면 강의 ② 시설이용 제한 ③ 그룹 활동 ④ 수업방식 결정 및 연구주제의 변화 ⑤ 업무환경 및 담당업무의 변화 ⑥ 대응지침 수립 ⑦ 방역 ⑧ 강의 운영 ⑨ 학생지원으로 분류
<p>3. 도큐멘테이션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1명) - 전략 수행 전반 관리 및 감독• 기록학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1명) - 기록 수집 및 대학구성원들의 참여 촉진 - 기록 분류 및 목록 업무 보조• 도큐멘테이션에 높은 흥미를 가진 대학구성원(2명) - 기록 수집 및 대학구성원들의 참여 촉진• 학생회 임원(1명) - 도큐멘테이션 전략 홍보• 기타그룹(대학구성원 전체) - 코로나19 관련 기록 생산 및 다른 구성원에게 전략 참여 촉진
<p>4. 참고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조사 -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를 조사하여 기록의 수집 방식과 수집 기록의 형태 및 내용을 파악

- 면담조사
 - 대학구성원과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예방의학 전공 주재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해야 할 기록의 유형과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관련 기록 수집 현황, 수집 시 어려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행동에 대한 의견을 정리
- 코로나19 대응 기록화 지원 가이드 및 대학기록 분류기준표
 - 2020년 12월 29일 기준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기록화 지원 가이드' 제시한 기록의 보존 기간 책정 기준과 대학기록관리 업무 시 사용하는 기록 분류기준표를 참고하여 코로나19 관련 대학기록의 보존가치를 판단 및 기록 분류 업무 수행

5. 주요 고려사항

-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유형
 - 정부 및 대학 본부의 대응 지침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대학의 대응 기록
- 기록관의 기록 소장 및 관리 현황
 - 이관 이력 및 수집 활동 부재로 소장 기록 거의 없음
-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의 제약사항
 -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 교육기회 부재
 - 예산 부족
 - 민감한 정보 포함
-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행동
 - 구체적인 수집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대학 내/외 구성원 또는 그룹과의 협력 관계 구축
 - 도큐멘테이션 홍보 활동
 - 기록 수집 활동
 - 기록 수집 및 전시 공간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웹사이트 개설(선택)
 - 기록물의 기증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상세 안내

6. 전략 적용 기간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 향후 조치

- 새로운 기록 분류 체계 수립 또는 기존의 분류 체계 수정
- 수집 기록물의 선별 및 DB 구축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선

6. 결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비록 코로나19 발생 직후에는 재난 대응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민첩한 대응이 어려웠지만 코로나19를 바탕으로 관련 기록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리한다면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염병의 대응 개선과 미래의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행동으로서 코로나19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기록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체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대학기록관을 주축으로 대학 내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헤크만의 모델 중 예비분석 단계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를 실천하였다. 첫 번째, 예비분석 단계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도큐멘테이션 시기와 수집 기록의 형태 및 내용으로 정의하기 위해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사례를 조사하고, 대학구성원 및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예방의학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외 대학의 사례조사를 통해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면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에 반영하여 최종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정의하였다. 두 번째,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의 장애요인과 요구사항,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예비분석 단계와 전략 설계 단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기록관리 전문요원 3명에게 전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최종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적용하여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 대학의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업무 부담과 수집정책의 부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전문요원들은 기존의 기록관리 업무가 많으며, 전문요원이 타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고 답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영역 내의 이해관계자들과 전문요원의 협력을 강조하여 전문요원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을 해당 이해관계자들과 분담한다는 특징이 있다(Hackman & Wanow-Blewett, 1987).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기록 수집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게 기록의 수집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략 모델을 활용하여 기록물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기록관이 특정 영역에 대한 기록의 확보가 필요할 때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다면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대학기록관의 기록 수집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의 감염병 재난 대응에 있어 재난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의 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대학의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서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교육 및 연구, 봉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의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감염병 재난과 같이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을 가진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충분한 기록의 확보가 필요함을 조명하였다.

셋째, 전략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정이 각 기관에서 기록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필요정보의 수집 방식을 안내해주는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특정 영역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영역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조사 없이 어떤 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감염병 도큐멘테이션을 위해 필요한 기록의 유형과 해당 기록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과 결과가 각 기관에서 기록의 확보 계획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시, 면담대상자를 대학구성원의 유형별로 한 명씩을 선정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좀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인원에 대한 면담이나 확장된 크기의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한다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일반화 및 적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이 기록의 확보 목적과 범위, 필요행동 등을 정의하지만 기록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필요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감염병 재난 대비 기록 확보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나아가 대학의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의 확보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조명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20). 대학기록물관리지침(11-1741050-000067-14).
- 김용철 (2020.01.31.). WHO, 신종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 “교역·여행 제한 반대”. SBSnews,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2717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김유승, 류반디 (201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194.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4.173>
- 김지훈 (2020.12.30.). 국가기록원, 감염병 사상 첫 ‘코로나19 백서’ 착수.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915171141564>
- 신현기, 박역중,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2012). 경찰학사전. 파주: 법문사.
- 오정희, 정연경 (2015).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89-12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1.089>
- 이미영 (2009). 재해 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한신·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1, 85-116.
- 이순민 (2020.09.17.). 인천, 감염병 대응조직 새로 만든다. 인천일보,
출처: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626>
- 정혜지, 이승휘 (2018). 미국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 재난컬렉션 수집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5, 235-273.
<http://dx.doi.org/10.20923/kjas.2018.55.235>
- 질병관리청 (2021.03.02.). 코로나19란?. 출처: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대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0212&cid=46615&categoryId=46615>
- 한희동 (2013).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한 대학의 설립자 기록물 수집 방안: A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 전공.
- 한희정, 강주연, 김용, 오효정 (2017a). 자동수집 기반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전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127-15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4.127>
- 한희정, 박태연, 오효정, 김용 (2017b). 재난안전정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온라인 기록정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187-213. <http://dx.doi.org/10.16981/kliss.48.2.201706.187>
- Cox, R. (1996). Documenting localities: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Metuchen: Scarecrow.
- Hackman, L. & Warnow-Blewett, J. (1987).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The American Archivist, 50(1), 12-47.
- Johnson, E. (2008). Our archives, our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The American Archivist, 71(1), 190-202.
- SAA[n.d.]. documentation strategy. SAA Dictionary. Available: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documentation-strategy.html>
- Samuels, H. (1986). Who controls the past. The American Archivist, 49(2), 109-124.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2020.03.12.). 뉴시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2_0000952312&cID=10101&pID=1010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an, H. D. (2013). Acquisition Methods of University Founder's Records by Documentation Strateg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an, H. J., Gang, J. Y., Kim, Y., & Oh, H. J. (2017a). Design and construction strategy for disaster and safety record information resources archives based on automatic acquisition.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4), 127-154.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4.127>
- Han, H. J., Park, T. Y., Oh, H. J., & Kim, Y. (2017b). A study on improvement and analysis of records management status for disaster safety archives in online environment.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187-213. <http://dx.doi.org/10.16981/kliss.48.2.201706.187>
- Jeong, H. J. & Lee, S. H. (2018). A study of establishment and acquisition for disaster collections on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5, 235-273. <http://dx.doi.org/10.20923/kjas.2018.55.235>
- Kim, J. H. (2020.12.30.).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launches its first “COVID-19 White Paper” in the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s. Availabl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915171141564>
- Kim, Y. C. (2020.12.30.). WHO Declares a New Coronavirus Emergency ... “No trade or travel restrictions”. SBS News, Available: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2717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Kim, Y. S. & Ryu, B. D. (2015). A study on the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No-Gun Ri massacre documentation strateg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4), 173-194.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4.173>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03.02.). What is COVID-19?. Available: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 Korea Research Institute [n.d.]. University. The Great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0212&cid=46615&categoryId=46615>
- Lee, M. Y. (2009). A case study on the documentation in a disaster area: on the basis of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85-116.
- Lee, S. M. (2020.09.17.). Incheon will create a new organization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cheon Daily Report*, Available: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626>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0). Guidelines for managing college records(11-1741050-000067-14).
- Oh, J. H. & Chung, Y. K. (2015). A study of us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1), 89-12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1.089>
- Shin, H. K., Park, E. J., Ahn, S. R., Nam, J. S., & Lee, A. Y. (2012). *Police dictionary*. Paju: Bobmunsa.
- WHO declares COVID-19 “Pandemic”. (2020.03.12.). Newsis, Available: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2_0000952312&cID=10101&pID=10100